

지역 소식통

정읍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한다.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정읍시에서 운영한 이 교육은 도내 공무원들에게 시·군별 관광 및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고, 우수시책과 선진사례들을 공유해 전북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이다.

특히 시는 참석자들과 함께 동화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을 탐방하고 동화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사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내장산생태탐방원과 임산물체험단지 등 정읍의 관광시설을 체험하며 정읍만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알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고창군, 22일 심원면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서

고창군이 오는 22일 심원면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24년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연인습지인 '고창갯벌',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인천강하구' 총 3곳의 습지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고창갯벌은 멸종위기종 포함 164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연속유산인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습지유전자 표창,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

정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 캠페인,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교육 등 20여개의 생태관광 체험부스가 준비된 '함께습지 페스타'가 운영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란타르 협약 서명일(1971년2월2일)을 기념하며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매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하며 번갈아 개최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 습지의 날이라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고창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OU 체결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부안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50명 입국 환영식 및 설명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17일 MOU 체결한 베트남 카미우성 타이빈현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의 입국 환영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체류에 관한 유의사항, 기초법질서, 한국사회적응정보, 농작업안전수칙, 부안군 현황안내 등 조기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개설편을 운영하는 제도이며, 체류기간은 5개월(E-8)이며 상설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부안군은 206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50개 농가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132명 증가했으며 MOU체결국인 베트남 근로자 50명, 결

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의 베트남 외 4개국의 근로자가 156명이다.

부안군은 계절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무여건, 주거환경, 임금지급,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절근로자 중 베트남 근로자가 87%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통역 도우미를 통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언어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환영사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과, 농지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인력난 해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농작업 시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분기별 으뜸 시정상 수상 부서 신태인읍 선정

2022년부터 민·관 협력동진강 경관 조성 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발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 으뜸 시정상을 신설하고, 최초 수상 부서로 신태인읍을 선

정했다. 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부

서로 신태인읍을 선정하고 으뜸 시정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으뜸 시정상'은 분기마다 우수한 성과를 이뤄낸 부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부서가 신청한 업무실적의 성과 검증과 시정기여도 △단년도 △주체성 △노력도 △성과 만족도 등이다. 이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심사를 통해 단 1개의 부서를 선정해 포상한다.

1분기 으뜸 시정상을 수상한 신태인읍은 민석보 합터에서 정우교 구간까지 11만여㎡ 규모의 유채꽃밭을 조성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읍민들과 읍사무소 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역발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 으뜸 시정상을 신설하고, 최초 수상 부서로 신태인읍을 선정했다.

고창군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고찰의 향기 속에'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10월까지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창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대웅보전, 만세루,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도술암 마애불,

금동지장보살좌상, 석씨유류 등 천년 고찰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 질 예정이다.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선운사 차별에서 제조한 발효차를 활용하여 차를 시음하고 차담을 나누는 '전통다도체험'이 진행되고, 선운사 경내 마당에서는

인경, 천연염색, 선운사 보물을 찾아라!(보물탐방)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지난 17~18일은 보물탐방체험 '선운사 보물을 찾아라'에서는 선운사의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듣고 살펴본 후 굵등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6월 15~16일, 7월 6~7일, 9월 21~22일, 10월 26~27일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6일 광명 라가사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탄소중립 부안형 ESG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방향 제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6일 광명 라가사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탄소중립 부안형 ESG를 발표하여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안형 ESG는 지방정부·기업·공공기관·엔지오 등과 함께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염생식물식재 및 군락지형성)·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해상풍력 기반 미련 등 탄소중립 상생협력 ESG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임원도시 단재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 하였으며,협의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와 회원도시간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탄소중립 부안형 ESG 행정 사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화 및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위해 전임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2024년 신임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회원도시들과 국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Energy saving campaign banner with text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and a list of 4 energy-saving tips.